2020-07



# 금융시장 브리프

우리금융경영연구소 경제·글로벌연구실 2020. 7. 9.

- [금리] 7월 한국(0.50%)과 미국(0.25% 상단) 기준금리 현 수준에서 동결 전망 (국고채 3년 금리 상승: 6월말 0.85%→7월말 전망 0.87%)
  - 하반기 경기회복 기대와 추경용 적자국채 발행으로 금리상승압력이 높아지 겠으나, 한국은행·외국인의 국채 매입으로 국고채 금리는 소폭 상승에 그칠 것으로 예상
- [주가] KOSPI 오름세: 6월말 2,108→7월말 전망 2,220
  - Valuation 부담, 코로나19 재유행 우려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시중 유동성, 경기회복 기대에 힘입어 주가지수는 오름세를 이어갈 전망
- [환율] 원/달러 환율 하락(원화 강세): 6월말 1,203원→7월말 전망 1,190원
  - 주요국 경기회복으로 미 달러화가 약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 개선, 외국인 채권투자 확대로 대내 달러수급 여건이 개선되어 원화는 절상될 것으로 예측
    - 유럽·중국의 경기회복 기대로 유로화(1.12→1.13)와 위안화(7.07→7.02)는 강세, 안전자산 성격의 엔화(107.7→108.5)는 약세 전망

작성자: 천대중 전문연구위원(02-2173-0572), 박수빈 조사원(0556) 책임자: 권영선 실장(02-2173-0569)

## 1. 금리

- 국고채 3년 금리 상승 전망: 6월말 0.85%→7월말 0.87%
  - 금통위는 7.16일 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(0.50%)를 동결할 전망
    - 6.25일 한은은 경기회복세가 부진하고 물가상승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어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할 계획임을 재확인("물가안정목표운영상황 점검")
    - 금융시장에서는 한은의 추가 인하(5.28일, 0.75% → 0.50%) 이후 기준금리 수준이 실효 하한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
      - \* 연준도 7.30일 FOMC에서 기준금리(0.25% 상한)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("경기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금리를 동결하고 자산매입 등 시장안정화 정책대응도 지속", 6월 연준 의사록)
  - 하반기 경기회복 기대와 3차 추경용 적자국채 발행(22.9조원)으로 금리 상승 압력이 높아지겠으나, 한국은행과 외국인이 국채 발행물량을 상당 부분 소화 할 것으로 보여 국고채 금리는 소폭 상승에 그칠 전망
    - 한국은행은 7.2일 세 번째 국채 단순매입(1.5조원)을 실시하였으며, 수급 불안에 따른 시장금리 급등 현상이 나타날 경우 추가 매입에 나설 것으로 예상
      - \* 외국인은 6월중 국채 6.1조원, 통안채 3조원, 은행채 1.1조원 등 총 10.2조원을 순매수(6월말 기준 외국인 국내채권 보유 잔액은 146.7조원으로 사상 최고치)

#### 2020년 국내 금리 전망

항목	단위	5월	6월	7월(F)
기준금리	기말, %	0.50	0.50	0.50
국고채 3년	기말, %	0.81	0.85	0.87

자료: Bloomberg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#### ※ 6월 전망에 대한 평가

- 6월말 국고채 3년 금리는 0.85%로 전망치(0.85%)에 부합
- 실물경제의 더딘 회복, 한은의 국고채 단순매입 발표(6.30일)로 시장금리가 하 향 안정

## 2. 주가

- KOSPI 상승 전망: 6월말 2,108→7월말 2,220
  - Valuation 부담, 코로나19 재유행 우려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시중 유동성, 하반기 경기회복 기대에 힘입어 주가지수는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
    - 한은 기준금리 추가 인하(5.28일), 부동산시장 규제 강화(6.17일), 기업공개 (IPO) 흥행\*으로 개인 자금이 예금에서 주식시장으로 이동할 유인이 강화
      - \* SK바이오팜 청약(6.23~24일)에 약 31조원의 자금이 유입(7.2일 상장 후 3거래일 연 속 상한가를 기록)
      - \* 4~5월 중 예금은행의 정기예금이 4.5조원 줄어들었고 6월에도 감소세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된 반면, 주식시장의 투자자예탁금은 4~6월 중 3.1조원 증가
    - 반면, 주가 고평가 우려는 지수 상승폭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
      - \* 국내 주요 상장기업의 2020년 영업이익 증가율 전망치(컨센서스)는 6월말 현재 3% 수준으로 3월말(21%) 대비 18%p 하향 조정된 반면, 동 기간 중 KOSPI는 20% 이 상 반등
  - 국내 은행주는 저평가 매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(주택담보대출) 규제, 저금리 지속으로 시장 대비 약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임
    - \* 은행업 주가지수(기말) : 2020.4월 1,332 → 5월 1,352 → 6월 1,302

#### 2020년 국내 주가 전망

항목	단위	5월	6월	7월(F)	
KOSPI	기말	2,030	2,108	2,220	

자료: Bloomberg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#### ※ 6월 전망에 대한 평가

- 6월말 KOSPI는 2,108으로 전망치(2,150)를 하회
- KOSPI는 5월말 2,030에서 6.10일 2,196까지 급등했으나, 미국 등 주요국의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주가 조정 요인으로 작용

#### 3. 환율

■ 원/달러 환율 하락(원화 강세) 전망: 6월말 1,203원→7월말 1,190원

- 코로나19 재유행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요국의 경기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달러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, 우리나라 무역수지 개선\*과 외 국인의 국채투자 지속으로 대내 달러수급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
  - \* 한국 무역수지(억 달러) : 4월 -16.0 → 5월 4.5 → 6월 36.7
  - 6월 들어 전세계에 코로나19 확진자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으나, 주요국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방식(예: 사회적 거리두기의 부분적 강화, 마스크 사용 권고 등)으로 대응
    - \* 개인들도 학습효과를 통해 극단적인 공포심리에서 벗어나 방역지침을 준수한 상태에서 일상적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경향이 관찰(예를 들면 Apple의 이동성 지수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국, 독일, 일본, 영국 등 주요국의 이동성은 확대되는 추세)
- 하반기 유럽·중국의 경기회복 기대로 유로화(6월말 1.12→7월말 1.13)와 위안 화(7.07→7.02)는 달러화 대비 강세, 안전자산 성격의 엔화(107.7→108.5)는 약세를 예상
  - EU의 경기부양정책이 예상되며, 중국도 확장적 재정집행을 본격화할 전망
    - \* 7.17~18일 EU정상회의에서 경제부흥기금(7,500억 유로 규모, GDP 대비 5.4%) 조 성에 회원국들이 합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
    - \* 중국 정부는 5월 전인대에서 밝힌 6.35조 위안 규모(GDP대비 6.4%)의 경기부양 패키지를 7월부터 본격 집행할 방침
  - 다만, 미·중 갈등은 달러화의 약세폭(위안화의 강세폭)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
    -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(6.30일)에 대응하여 미국 행정부가 홍콩정책법(1992)에 의거해 홍콩에 부여했던 특권을 폐지(6.30일)하였고 미 의회는 홍콩자치법 (Hong Kong Autonomy Act)\*을 통과(7.2일)
      - \* 영국·중국 공동선언문(1984년) 또는 홍콩기본법에 명시된 중국의 의무(2047년까지 홍 콩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)를 위반한 외국인(예: 홍콩인권법에 책임이 있는 중국 공산 당 간부)과 거래하는 해외금융기관을 제재(secondary sanction)할 수 있는 홍콩자치법 (안)이 상·하원을 차례로 통과하여 7.2일 현재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(대통령이 서명 하면 입법이 완료)

## 2020년 주요국 화율 전망

항목	단위	5월	6월	7월(F)
원/달러	기말, 원	1,238	1,203	1,190
엔/달러	기말, 엔	107.8	107.7	108.5
달러/유로	기말, 달러	1.11	1.12	1.13
달러/유로 위안/달러	기말, 위안	7.14	7.07	7.02

자료: Bloomberg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## 2020년 주요국 통화대비 원화 환율 전망

항목	단위	5월	6월	7월(F)
원/엔(100엔)	기말, 원	1,148	1,116	1,097
원/유로	기말, 원	1,374	1,348	1,345
원/위안	기말, 원	173.4	170.2	169.5

자료: Bloomberg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## ※ 6월 전망에 대한 평가

- 6월말 원/달러 환율은 1,203원으로 전망치(1,220원)를 하회
- 홍콩보안법과 관련한 미·중 갈등이 예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나, 미국 내 코로나19 재유행으로 달러화가 주요국 통화 대비 약세를 보인데 주로 기인

## 붙임1

## 6월중 기준금리와 국채 수익률 동향

## ■ 국고채 3년 금리는 전월말 대비 4bp 상승(5월말 0.81%→6월말 0.85%)

- 3차 추경에 따른 국채발행 물량\* 급증으로 국고채 3년 금리가 월중 0.90%까지 상승했으나, 코로나19 재확산 우려·한국은행 유동성 공급 확대로 반락
  - \* 3차 추경 규모 35.1조원(적자국채 발행 22.9조원)
  - 한국은행은 전액공급방식 RP매입 기한을 연장(6월말→7월말)하고 3차 국고채 단순매입(1.5조원, 7.2일 입찰)을 실시

## ■ 연준 기준금리 동결,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전월말 대비 보합

- 미국 연준은 6월 FOMC에서 기준금리(0.25% 상한)를 동결
  - 국채, 정부기관 MBS·CMBS 매입 규모를 현재 수준에서 유지한다고 밝힘
  - 6월 점도표에서 FOMC 위원들은 기준금리가 2022년까지 현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치(forward guidance)를 제시
  - 연준은 유통시장(6.16일)과 발행시장(6.29일)에서 회사채 매입을 개시
    - \* 올해 3월 도입한 기업신용기구(PMCCF·SMCCF)를 통해 만기 5년 이내, 우량등급 회사 채와 일시적으로 투기등급으로 강등된 회사채(fallen angel)를 대상으로 7,500억 달러 규모 매입
-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경제활동 재개 기대로 월중 0.90%까지 상승했으나 미국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반락(5월말 0.65%→6월말 0.66%)

주요 금리

			6.30일 종가	변화폭(bp)					
				1개월 전	3개월 전	6개월 전	YTD	1년 전	
한국	기준금리(기말)	%,bp	0.500	0	-25	-75	-75	-125	
	통안(1년, 기말)	%,bp	0.652	6	-35	-71	-71	-89	
	국채(3년, 기말)	%,bp	0.845	4	-88	-87	-87	-62	
미국	기준금리(기말)	%,bp	0.250	0	0	-150	-150	-225	
	국채(10년, 기말)	%,bp	0.656	0	-1	-126	-126	-135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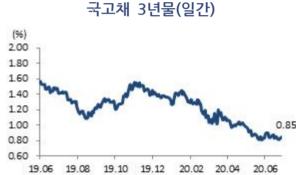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## ■ 국내외 주요 금리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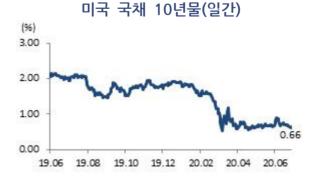












# 붙임2

# 6월중 주가지수 동향

## ■ 코스피 지수는 6월말 2,108로 전월말 대비 3,9%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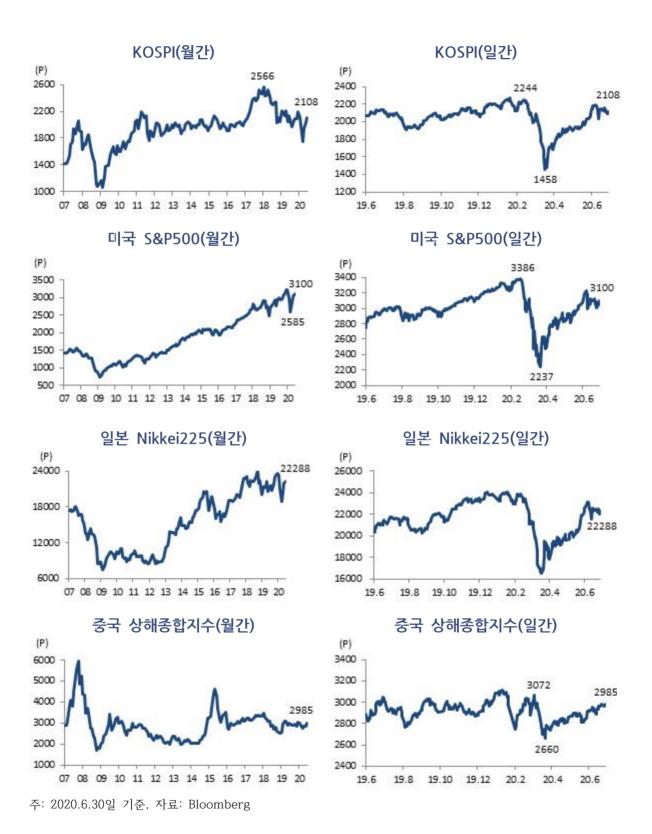
- 올해 저점(3.19일, 1,458) 대비 44.6% 올라 연중 고점(1.22일 2,267)의 93% 수준까지 회복
  - \* 6월 중 외국인(1.2조원)과 국내기관(2.6조원)은 국내 주식을 순매도한 반면, 개인(3.8 조원)은 순매수
- 선진국 증시(MSCI DM)는 2.5%, 신흥국(MSCI EM)은 7.0% 각각 오름세
  - 미국(1.8%), 유럽(6.0%), 일본(1.9%), 중국(4.6%) 증시가 모두 상승
- 국내 은행주는 3.7% 하락(코스피 대비 7.6%p 부진)
  -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(6.17일), 은행권의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이 슈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우리금융(-3.5%), KB금융(-0.1%), 신한금융 (-4.6%), 하나금융(-9.2%) 동반 하락
    - \* 6월중 외국인 순매도(억원): 우리(357), KB(442), 신한(1,297), 하나(1,000)
  - 글로벌 Top 50 은행주는 4.5% 상승(아시아 Top 10 은행주는 0.6% 상승)

주요 주가

		6.30일	변화율(%)					
		종가	1개월 전	3개월 전	6개월 전	YTD	1년 전	
국내	KOSPI	2108.3	3.9	20.2	-4.1	-4.1	-1.0	
증시	KOSDAQ	738.0	3.4	29.7	10.2	10.2	6.9	
	(선진국)MSCI DM	2201.8	2.5	18.8	-6.6	-6.6	1.1	
	(신흥국)MSCI EM	995.1	7.0	17.3	-10.7	-10.7	-5.7	
해외	(미국)S&P500	3100.3	1.8	20.0	-4.0	-4.0	5.4	
증시	(일본)Nikkei225	22288.1	1.9	17.8	-5.8	-5.8	4.8	
	(유럽)Eurostoxx50	3234.1	6.0	16.0	-13.6	-13.6	-6.9	
	(중국)상해종합지수	2984.7	4.6	8.5	-2.1	-2.1	0.2	
	Global Top 50 <sup>1)</sup>	-	4.5	8.7	-27.5	-27.5	-24.1	
	Asia Top 10	-	0.6	2.6	-19.2	-19.2	-18.4	
은행주	우리금융	8,810	-3.5	15.2	-24.1	-24.1	-37.3	
근앵구	KB금융	33,950	-0.1	-1.7	-28.8	-28.8	-26.0	
	신한금융	28,750	-4.6	0.5	-33.7	-33.7	-36.0	
	하나금융	27,000	-9.2	16.9	-26.8	-26.8	-27.8	

주: 1)글로벌 은행 순위는 `18년 Tier1 자본 기준

자료: Bloomberg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

## 붙임3

## 6월중 환율 동향

- 원/달러는 6월말 1202.7원으로 전월말 대비 2.8% 하락(원화 강세)
  - 미국내 코로나19 확진자수 증가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, 국내 수출 감소폭 축소(무역수지 개선), 외국인의 국내 채권 순매수로 외환 수급도 개선
    \* 통관수출 증가율(전년동기비): 4월 -25.5% → 5월 -23.6% → 6월 -10.9%
- 엔화, 유로화, 위안화 모두 미 달러화 대비 강세를 시현
  - 엔/달러는 6월말 107.7엔으로 전월말 대비 0.1% 하락
    - 코로나19 재유행 우려로 안전자산인 엔화는 미 달러화 대비 소폭 강세
  - 달러/유로는 1.12달러로 1.0% 상승
    - EU 경제부흥기금 조성과 봉쇄조치 완화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로 유로화는 미 달러화 대비 강세
      - \* EU는 7월(17~18일) 중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대면 회의를 갖고 경제부흥기금 조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예정
  - 위안/달러는 7.07위안으로 1.0% 하락
    - 홍콩보안법 제정(6.30일)이 미·중간 전면적 갈등 양상으로 격화되지 않았고, 전인대 이후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정책 기대가 강화되면서 위안화는 미 달러 화 대비 강세

주요 화육

<u> </u>									
	6.30일	변화 <u>율</u> (%)							
	종가	1개월 전	3개월 전	6개월 전	YTD	1년 전			
원/달러(기말)	1,202.7	-2.8	-1.3	4.1	4.1	4.2			
엔/달러(기말)	107.7	-0.1	-0.8	-0.7	-0.7	-0.1			
달러/유로(기말)	1.121	1.0	2.4	-0.1	-0.1	-1.4			
위안/달러(기말)	7.07	-1.0	-0.2	1.5	1.5	2.9			
원/100엔(기말)	1116.4	-2.3	-1.0	4.9	4.9	4.2			
원/유로(기말)	1350.0	-1.6	0.7	4.2	4.2	2.8			
원/위안(기말)	170.2	-1.8	-1.1	2.6	2.6	1.1			
달러지수(기말)	97.4	-1.0	-1.7	1.0	1.0	1.3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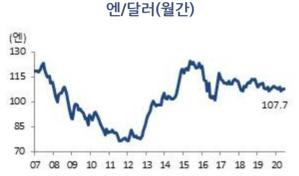
주: 변화율이 플러스(+)이면 미 달러화 대비 해당 통화의 절하(약세)를 의미. 다만, 달러/유로와 달러지수는 마이너스(-)일 경우 절하(약세)를 의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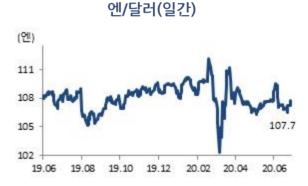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#### ■ 주요 화율

















주: 2020.6.30일 기준, 자료: Bloomberg